

최고령합격기
[제53회 사법시험 최고령합격]

愚公移山



오 세 범

- 1955년 생
- 인천고등학교 졸업(1973년)
- 서울대학교 사회계열 입학(1974년)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언어학과 졸업(1994년)
- 대웅글로벌제약주식회사 공무과 기관실 근무
- 한겨레서점 운영
- (주) 내일신문 업무실장
- 법무법인 다산 연구실장 등 다수 사회경험
- 제53회 사법시험 최고령합격

I. 들어가며

공개적으로 글을 쓴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특히 자신의 이야기를 쓴다는 것은 더욱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쓰자니 부끄러운 점이 많고, 과장 또는 왜곡은 읽는 사람의 신뢰와 저 스스로를 배반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법시험 합격자의 시험준비 기간이 평균 5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제 경우 15년만에 사법시험 합격이란 결코 내세울 것이 못됩니다. 아니 오히려 시험방법으로서는 실패의 기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수험방법을 원하시는 분은 다른 수석 합격자나 최연소 합격기를 참고하시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언론사의 부탁을 받고 합격기를 쓰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수험기간 중 직간접으로 알게 된 많은 사람들, 특히 수험생들에게 저의 잘못을 타산지석으로 삼기를 바라며, 한가지 정도는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서입니다.

II. 사법시험도전 이전의 이야기

초등학교 부부교사였던 부모님은 저의 이름을 ‘世(인간 세) 範(법 범)’이라고 지어주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교육자의 자녀로서 세상의 모범이 되라.”는 말을 자주 듣고 자랐습니다. 저는 공부 잘하는 것이 모범인줄 알고 중고시절 열심히 공부해 1974. 3. 서울대학교에 입학하였고 학자로서의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입학 후 얼마 되지 않아 당시

우리나라가 유신독재 말기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민주주의 후퇴, 인권 탄압, 민주주의 회복을 외치는 수많은 사람들을 투옥, 빈부양극화, 서민들의 삶의 피폐 등등.

저는 언어학자로서의 꿈과 지식인의 사회적 양심사이에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지식은 사회적 산물이며 지식인은 사회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명제와 “고민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없다. 아는 만큼 실천하고 실천에 필요한 만큼 알아야 한다.”로 결론짓고 시대의 요구에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1977. 4. 저는 학내 민주화 시위에 가담하여 유신철폐를 외치다 긴급조치9호 위반으로 제적, 구속되었습니다. 1979. 8. 15. 특사로 출소했으나 2달후에 10. 26.이 발생하였고 유신독재가 끝나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군부는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유신헌법에 따라 대통령간선제를 시행하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열망에 따라 ‘대통령직선제를 위한 국민대회’(소위 ‘명동YWCA결혼집회사건’)를 열다가 계엄법위반죄로 다시 구속되어 도합 3년 4개월의 수감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보일러기술을 배워 1984. 제약회사 보일러공으로 취직하여 결혼도 하고 두 딸도 출생하며 3년여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다 1987. 6월 민주화 항쟁에 이은 전국적인 노동운동 열기속에서 저는 노동조합 총무부장으로 노조결성에 앞장서게 되었고 이로 인해 해고되었습니다.

2년여의 복직소송에서 이기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김철준 변호사(전 국가인권

위원회 사무총장, 현 법무법인 다산 대표변호사)를 알게 되어 상담실장으로 2년 8개월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1993. 내일신문창간에 참여하여 업무실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신문사가 안정되면서 저는 오히려 지적 재충전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40대가 넘어 새로운 도전에 불안하기도 했으나 더 나이가 들면 도전 자체를 할 수 없을 것 같아 회사를 사직하고 1997. 1.부터 사법시험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III. 사법시험 준비과정

-이하 연도별로 정리하였습니다.

1. 1997. 4. 1차시험 실패

당시는 1차시험 4회 제한이 있었는데 5년안에 끝낼 생각으로 경험삼아 시험쳤습니다.

2. 1998. 2. 1차시험 실패

시험10일전에 과로로 쓰러져 링게를 맞으면서 보냈습니다.

3. 1999. 2. 1차시험 실패

시험 3개월전부터 허리가 아파 책상에 앉아 있지를 못하고 병원에 다니면서 물리치료 받으면서 공부했습니다.

이후 1999. 5. 가평 고시원에 가서 허리를 치료할 겸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조금씩 달렸는데 매일 뛰다보니 습관이 되어 이제는 매일 3km를 뛩니다. 이후 마라톤 대회도 10여 차례 나갔습니다.-주로 하프코스)

4. 2000. 2. 1차시험 합격,같은 해 6. 2차시험 실패

이번에 1차시험 안 되면 정리할 생각이었습니다. 처음으로 1차시험 통과후 자신감을 갖게 되었으나 2차는 공부량 부족으로 불합격했습니다.

5. 2001. 6. 2차시험 실패

1년만에 2차시험을 치르기에는 제게는 역부족이었습니다(총점 11.5점 차).

당시는 12월 초에 발표가 나므로 2달여후의 1차를 보고 안 되면 정리할 생각이었습니다.

6. 2002. 2. 1차시험 합격, 같은 해 6. 2차시험 실패(총점 7.5점 차)

생각만큼 점수가 오르지 않았으나 기회가 한번 더 있으므로 계속 공부했습니다.

7. 2003. 6. 2차시험 실패

컷은 겨우 넘었으나 형소법 과락이었습니다.

이후 초등학교이던 두 딸이 고등학교이 되어 대학진학이 문제되고 그동안 생계를 전념하던 처가 회사에서 구조조정 대상에 해당되어 부득이 제가 공부를 잠시 접고 법무법인 다산 연구실장으로 취직하였습니다.

8. 2004.~2006. 3년간 1차시험 실패

회사생활중에도 일 끝나면 집 근처 독서실에서 공부하였지만 시험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2005. 9. 결혼생활 20주년을 맞아 튼튼한 몸과 의지 외에는 처에게 선물해줄 게 아무것도 없어서 난생 처음 마라톤 풀코스(42.795km)에 도전하였습니다.

프로선수들도 힘들어 한다는 마의

34km지점에서부터(온몸의 글리코겐에 고갈되어 몸이 노동을 거부한다고 합니다.) 양쪽 다리 임파선이 붓기 시작하였습니다. 아픈 걸 참고 뛰었는데 곧 머리에서 피가 터질 것 같은 통증을 느꼈습니다. 순간 '이러다 죽을 수 있겠다.'고 판단하여 할 수 없이 절뚝거리며 걸었습니다.(경험상 마라톤은 주저앉으면 다시 뛠 수가 없습니다. 걷더라도 움직여야 합니다)

주최측 구급차가 타라고 하였으나 결승점에서 기다릴 처를 생각하니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 달리기 시작했나."하는 후회가 밀려왔으나 "이 마라톤을 포기하면 더 힘든 사법시험을 합격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걸었습니다. 1시간쯤 걷다보니 신기하게도 임파선이 가라앉고 다시 뛠 수가 있었습니다. 결승점 가까이 가니 멀리서 처가 기다리는 모습이 보이는데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해냈구나! 해냈어..." (완주시간-5시간 32분)

9. 2007. 2. 1차시험 실패

아이들이 모두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자(큰 딸 의대, 작은 딸 육군사관학교)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다시 본격적으로 수험 공부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시험감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때 처에게 미안하여 독서실총무를 하면서 공부하였습니다.

10. 2008. 2. 1차시험 합격, 같은 해 6. 2차시험 실패

1차시험 1달여 남은 상태인 2008. 1. 6.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며칠을 울었습니다.

지금도 어머니 생각만 하면 목이 메입니다. 제가 첫 번째 구속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쓰러져서 15일 만에 일어나셨다고 합니다. 장남인데도 어머니 사랑과 기대를 가장 많이 받았는데 그 은혜를 갚을 기회가 없어졌습니다.

이번 시험이 안 되면 정리할 생각으로 편하게 시험 쳤는데 다시 1차에 합격하였습니다. 그런데 2차는 예상과 달리 형편없는 성적이었고 충격이 적지 않았습니다.(소위 '혜걸이'의 후과)

11. 2009. 6. 2차시험 실패

시험직전에 3주를 아파서 불안한 마음으로 시험 쳤는데 결과는 총점 0.93 차이였습니다. 비록 떨어졌지만 처음으로 2차합격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2차시험 직후 처의 반대가 심해 학원에서 법무사스터디매니저를 하고 있었는데 위 점수차를 알게 되자 처도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합격자 발표후부터 토익준비를 하다보니 2009. 12. 말부터 시험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12. 2010. 2. 1차시험 합격, 같은 해 6. 2차시험 실패

1차시험을 총점 2점차이로 근소하게 합격했는데 발표 때까지 확신을 못해 2차시험을 집중하지 못했습니다(안되면 법무사 동차를 노릴 생각이었습니다).

특히 시간 배분을 잘 못해 거의 1문제씩 쓰지 못했으므로 2차 점수가 너무 저조했습니다.

다행히 예전의 경험에 비추어 '최종합

격까지는 계속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7월 중순부터 스터디, 학원수강등 계속 2차시험 공부를 하였습니다.그래서 발표 후 큰 점수 차의 충격을 빨리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13. 2011. 6. 2차시험 합격, 같은 해 11. 3차시험 합격

같은 해 5. 중순까지 학원 3순환을 따라 갔고 그 후부터는 시간이 없어 고민하다 기출문제 10년치와 최신판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목차도 다 잡아보았습니다. 2차시험 문제지를 받는 순간 문제가 친숙하다는 느낌이 확 들어왔습니다.

이로써 기나긴 수험생활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IV. 반 성

이상에서 보듯이 저는 수험생활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저의 부족함에 대해 반성해보면, 첫째, 시험에 뛰어들 때 충분한 사전조사(소위 창업할 때의 시장조사)를 하지 못하고 뛰어들었다는 것입니다. 큰 방향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과 사회 발전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생각만 갖고 뛰어들었으며 구체적인 플랜이 없었습니다.

둘째, 나이들어 시작했다는 점 때문에 빨리 붙어야지 하는 조급성이 오히려 화를 불렀던 것 같습니다. 법리를 이해하기보다는 피상적으로 알고 무조건 외우려고 했던 것이 시험장에서 실수를 연발하게 되었습니다.

말들이 대학에 들어간 이후로 책임감도 줄어들고 공부와 쉼이면서 나중에는 공부자체가 재미있었습니다.

셋째, 초기에 무리하게 공부하다 몇 번씩 아파서 시험을 망친 적이 있습니다. 이 후 달리기등 적절한 운동을 계속 하면서 극복하였습니다.

V. 당 부

그럼에도 제가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규칙적인 생활'이었던 것 같습니다. 몸속에 일과표가 있어 그대로 따르는 것이 편했고, 그로써 장기간 수험 생활을 지치지 않고 견딜수 있었습니다.

둘째, '결과보다는 과정'을 항상 생각했습니다.

지금 여기서(now and here)의 삶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매순간 자신의 삶에 후회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가급적 사람들 만나는 것을 피했지만, (스터디든 식사든) 사람을 만나게 되면 지금 이순간 제 앞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후배들에게는 주로 격려를 하는 편이나 때로는 따끔한 충고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간혹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었다면 저의 미숙함 때문일 것입니다.

셋째, '운동도 한과목'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 하였습니다.

넷째, 시험기간이 길어져 경제적 어려움이 생기거나 긴장이 풀리게 되면 '취업

이나 알바'를 하였습니다. 공부만 할 때보다 한시간 한시간이 그렇게 아까울 수가 없습니다. 시간의 소중함을 알면 인생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섯째, 긴 수험기간을 거쳐 마지막에 와서야 '기출문제 10년치와 최신판례 3년치'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출제위원들의 짧은 출제기간, 복수정답시비, 특정학교 출제문제 부정시비등을 고려하면 검증된 기출문제를 살짝 변형해서 출제하는 것이 무난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고 변형된 것을 알아 낼 수 있다면 합격선을 넘는 것 같습니다. 2차도 마찬가지로 였다고 생각합니다.

VI. 글을 마치며

단지 최고령이란 이유만으로 (시험 장수기간은 사실상 실패의 연속임에도) 이렇게 합격기를 쓰는 것이 타당한지 지금도 확신이 안 섭니다.

다만,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고시촌의 후배들, 또는 알지 못해도 고시생활이라는 공통의 경험을 하고 계신 수험생들에게 고시촌을 떠나면서 저의 잘잘못을 밝히고 가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서 글을 썼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합격과 건투를 빕니다.